

기쁜 소식

신성근 신부

하느님께서서는 참된 삶의 길을 찾아 끊임없이 질문하는, 우리 사람을 그대로 버려 두지 않으셨다. 삶의 참뜻을 밝혀 주시고자 당신의 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일까?

1. 하느님의 계시

신앙은 사람을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인생과 세상만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분을 맨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이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적을 보이신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행적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계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갔다. 그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며, 여러 모양으로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고, 받은 계시에 따라 생활을 하였다.

계시는 하느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그 절정을 맞는다. 특히 하느님의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계시는 공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성경과 성전(聖傳)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성경을 하느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 하는 것이다.

2. 나자렛 사람 예수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들이 지어낸 전설적인 인물이거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 안에서 하느님으로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과 행적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분에게는 형언하기 힘든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악령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주시기까지 하셨다. 제자들을 비롯한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마르 4.41)라고 하면서 놀라워하였다.

3.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다. 그러나 당신의 도우심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과 행적은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죄하시면서도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다. 이는 누가 꺼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심으로써,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차게 증언하였고,¹⁾ 지금도 교회는 이 신앙을 세상 끝날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4. 믿는 이들의 기쁨

사람이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을 묻고 찾아왔는데, 하느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길을 환히 밝혀 주셨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은 진정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살기만 하면 진정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사람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허물투성이라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희망이 있기에, 우리 사람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1) 사도 10,34-43 :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11.28-30)

교회는 답합니다.

참다운 삶의 의미를 묻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하나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손을 내미셨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1티모 2.4)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²⁾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셔야 하며,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한다(74항).

“성전과 성경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 나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계시 현장 9항) 이 둘은 모두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마태 28.20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교회 안에 현존하게 하고, 그 열매를 풍부히 맺게 한다(80항).

2) 요한 14.6 :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은 것이다.”